

# 노관규-김문수 순천 지역 발전 지혜 모았다

순천 시장

국회의원 당선인

지난 24일 지역현안 정책 간담회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등 의견 K-콘텐츠 산업화 등 국비 건의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기로 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4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현안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노 시장과 김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지역의 현안인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역연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는 김문수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현재 지역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지난 24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현안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노 시장과 김 당선인은 의과대학 설립 논의 초기부터 전남도의 법적 권한 없음을 이유로 권한이 있는 정부 중심 공모를

주장해 왔다.

의과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동부 지역 전체 문제로 정교한 역할 분담을 통해 지

해롭게 풀어나가자고 했다.

노 시장은 주요 현안사업과 함께 남도 전통문화 기반 K-콘텐츠 산업화 등 국비 건의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김문수 당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노관규 시장과 협력해 지역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서로 협력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지역연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최대한 보좌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관규 시장은 27일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비롯해 지역 내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 디지털 트윈 기반 순천만습지 조성 시뮬레이션 사업 착수

12월까지 10억9400만원 투입 자연경관 습지조성 예측·대응 기대

순천시가 디지털 트윈 기반 순천만습지 조성 시뮬레이션 사업에 착수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디지털트윈 기반 순천만습지 조성 시뮬레이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이 주관한 '2024년 디지털 트윈 활용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순천만습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착수보고회에는 NIA와 수행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지스, 순천시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착수보고와 사업 대상지인 순천만습지 일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순천만습지 조성을 예측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형(구독형) 시뮬레이션 구축을 위한 것으로, 과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9400만원이다.

과업내용에는 △정밀 3차원 해수유동 모델 고도화 △담수 유입량, 조위 분석을 통한 최적 습지 조성 시나리오 분석 △드론 기반 지형고도, 식생군락, 시설물 지도 최신화가 포함돼 있으며, 수집된 실측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순천만습지 관리 기틀을 마련한다.

또 △소위별 갯벌변환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고정밀 드론영상 등을 적용한 디지털 트윈을 제작해 디지털화된 순천만갯벌 관리로 도시계획수립 결정을 지원한다.

순천시는 향후 사업 결과물을 기반으로 순천만습지 중장기 갯벌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클라우드 기반의 엡서비스 구현으로 타 공공기관의 갯벌관리 및 습지 조성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순천만 조위, 지형에 맞는 수로를 개설하여 물 흐름 정체를 방지하고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습지조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외국인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순천만국가정원, 외국인에게도 매력적 관광지 '주목'

개장 2달 만 주한미군 등 1만명 '즐기는 정원'으로 변화 주요

순천만국가정원이 내국인은 물론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주한미군 및 가족 등 500여 명이 정원을 방문했고 5월 셋째 주에만 외국인 1300여 명이 정원을 찾았다.

4월 개장 초기부터 5월 23일까지 방문

한 외국인이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들은 광주·전남 지역 여행사를 통해 방문한 단체와 가족 단위가 주를 이루며 유럽과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외국인에게도 매력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올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보는 정원'에서 '즐기는 정원'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우주, 물, 원시의 순천만'의 이야기를

담은 스페이스 브릿지와 흥학과 고니가 유유히 거니는 WWT습지, 물새놀이터, 자연주의 환경예술가 박봉기 작가의 두다 하우스는 외국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 순천시, 환경의 날 기념 최원형 작가 초청 강연회

내달 5일 신대도서관서 '기후위기와 사라져 가는 사계절'

순천시는 제29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오는 6월5일 오후 7시 신대도서관에서 '사계절 기억책'의 저자 최원형 작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기후위기와 사라져 가는 사계절'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강연은 우리 사회와 각자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 낼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형 작가는 '사계절 기억책',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2019년 순

천시 원시타원북(One City One Book)인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등 기후위기 극복,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책을 발간했다. 특히 '사계절 기억책'에는 순천만 흑두루미를 위해 전봇대를 제거한 이야기도 수록돼 있다.

최원형 작가 초청 강연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네이버폼( <https://naver.me/57rCRicF> ) 또는 순천시 기후에너지과(061-749-5764)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자연존재물들의 가치성을 배우고, 나의 작은 노력과 우리 사회의 변화가 지속가능한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중학생 30명... 주요 사적지 탐방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관내 중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역사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체험학습은 순천역사문화탐방 강사인 박생섭 퇴직교사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유공원, 전일빌딩 245 및 옛 전남도청 등 5·18 주요 사적지 탐방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등으로 이뤄졌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5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중요성과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순천왕의중학교 한 학생은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를 직접 느낄 기회였다.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



순천지역 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23일 광주 5·18 자유공원에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역사 현장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순천교육지원청 제공

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역사 현장 체험학습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전남 義

(의) 교육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전남 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순천역사문화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순천 정유재란 체험학습과 '10·19 평화·인권'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